

심장병은 크게 나누어서, ①관동맥경화나 고혈압에 의해서 심장이 나빠지는 것, ②판막의 이상으로 나빠지는 것, ③선천적인 것, ④정신적 원인에 의한 것, ⑤ 심근의 장애에 의한 것 등이 있다.

① 관동맥경화나 고혈압에 의해서 일어나는 심장병

이것은 원래 건강했던 심장이 점차 나빠져서 일어나는 심장병이다.

또, 심장병이나 고혈압을 방치해두면 심부전이 된다.

관동맥경화나 고혈압에 의해 일어나는 심장병은 오랜 기간의 생활습관에 의해서 심장이 나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장에 관심을 갖는다면 예방할 수 있는 심장병이다.

② 판막의 이상에 의한 심장병

심장에는 4개의 방실이 있는데, 혈액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곳곳에 판막이 붙어 있다. 이 판막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기능장애를 일으켜 혈액의 흐름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을 총칭해서 심장 판막증이라고 부른다.

③ 선천성 심장병

출생할 때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최근 의학의 발달로, 수술에 의해 치료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④ 정신적 원인에 의한 심장병

심장 신경증이라고 하는데, 심장 자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불안감·공포감등의 영향으로 심장의 균형이 깨어져서 가슴이 아프다든가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⑤ 특발성 심근증

심장은 심근이라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심근의 활동으로 혈액을 송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심근에 원인불명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특발성 심근증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비대형 심근증과 확장성 심근증이 있다.

①비대형 심근증=심실벽이 이상하게 두터워지는 병으로, 약 1/3은 유전에 의해서 일어나며 나머지는 원인불명이다.

②확장형 심근증=심근세포가 변성을 일으켜 저항력이 약해지거나 선유화(線維化)되어 심부전을 일으키는 병이다.

이밖에 알콜성 심근증, 분만 후 심근증 등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